

광주 출신 서정섭·김현정 부부 요르단에 '희망의 학교' 세워
 음악봉사단체 '그레이션스' 내달 8~17일 '시리아 난민 위한 음악캠프'
 22~23일 봉선동 '디토'서 모금 콘서트... 2000만원 타악기 선물도



난민촌 아이들의 미소에 힐링을 선물합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은 이집트를 비롯해 시리아, 리비아 등 독재정권에 시달리던 아랍국가로 점차 확산됐다. 철옹성 같은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아랍의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시리아에서는 민주화의 물결 속에 보수와 진보 세력의 내전으로 16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고향을 등져야만 했다. 요르단으로 피난한 시리아 난민들 중 상당수는 아직까지 난민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경제·문화적 이유로 난민캠프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 출신 서정섭·김현정씨 부부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요르단 봉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요르단 자비르 마을에 '희망의 학교'를 세웠다.

서씨 부부는 주말마다 시리아 난민 30~40명을 대상으로 창고 2동을 빌려 세운 학교에서 영어, 태권도, 음악, 미술을 가르쳤고, 이달 초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밀려드는 학생들에 비해 도움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광주지역 음악인들이 시리아 난민과 '희망의 학교'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문음악인으로 구성된 음악봉사단체 그레이션스(Gracians)가 다음달 8~17일 '시리아 난민 정신적 치유와 청소년을 위한 힐링 음악캠프'를 위해 요르단 자비르로 날아간다. 지난 2007년 지역 성악가, 연주자 등 22명이 모여 결성한 그레이션스는 외국인 노동자 돕기 음악회 등 재능기부 자선 음악회를 열고 있다. 이번 해외 음악

봉사에는 김용석(음악감독·광주시향 타악기 수석), 염종호(바리톤), 노선진(소프라노), 박인애(건반, 작곡·편곡자), 김나래(바이올린), 김대식(베이스), 김해민(플루트)씨 등 7명의 단원과 여행사진작가 박재완씨가 함께할 예정이다. 박씨는 희망의 학교 학생들과 단원들의 활동을 사진에 담게 된다. 단원들은 현지에서 세미 뮤지컬 형식의 'the Exodus' 공연을 선사하고, 타악기·오카리나 합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2000만원 상당의 타악기와 함께 '희망의 학교'에 선물할 예정이다. 그레이션스는 요르단 '희망의 학교' 공연에 앞서 광주에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22~23일 오후 7시 남구 봉선동 갤러리레스토랑 디토에서 '희망의 속삭임'을 주제로 열리는 시리아 난민 아동 돕기 자

선 디너 콘서트(Dinner Concert)는 요르단 현지에서 열리는 음악캠프와 콘서트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강덕희(피아노), 변성호 플루트트리오, 염종호, 이후성(첼로·광주시향 부수석), 노선진, 임은주(마림바), 백미정(첼로), 한인자·김나래(바이올린)씨 등이 '여인의 향기', 바흐 '무반주 소나타', '헝가리안 댄스 5번', '카츄사' 등 10여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3만 원으로 식비가 포함돼 있다. 김용석 그레이션스 음악감독은 "요르단을 다녀온 뒤에도 시리아 난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화보집을 만들어 '희망의 학교'를 꾸준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9883-169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夜시장서 가격 흥정하고 덤 얻으며 시끌벅적...



시장은 북새통이었다. 거리 곳곳에 자리한 판매대에는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지인들과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도 많았다. 카메라를 메고 시장 곳곳을 영글에 담은 이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가게 간판, 길거리 안내도, 메뉴판, 그래피티 등 구석 구석 숨겨진 '작은 보물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다.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문전성서... 매일 둘째주 금요일 다양한 작품 보며 이야기꽃 '재미'... 먹을거리도 풍성

올해 들어 두번째 야시장이 열린 지난 12일, 2년만에 찾은 대인예술시장 야시장은 예전부터 활기가 넘쳤다. <사진> 미리 도착한 덕에 이곳저곳 공간들을 차분히 둘러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조선대 미대 출신 차수미씨가 주인장을 맡고 있는 '갤러리 대인'. 예전에 찰물점이었던 곳으로 현재 이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조강현씨가 함께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다. 이곳은 작은 도서관 '술'이라는 이름도 함께 갖고

있다. 아이들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고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책들도 갖춰놓았다. 눈에 띄는 공간은 가파른 사다리를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작은 방. 조용히 책 읽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록 박혀서 사색에 빠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팔뱅이' 선물가게에 들러 작품을 구경하고, 대인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챙겼다. 아트스페이스 '우그로'에서는 그윽한 커피향이 가득하다. 대인야시장의 대표 공간인 한평갤러리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가 한창이었다. 참여작가는 김환·류세연·범소연·장원석씨. 화려한 조명의 올빼미 조각은 사람들의 카메라 세례를 가장 많이 받았다. 액세서리, 인형, 의류, 조각, 그림, 공예품 등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예술만물마차'는 150여개가 넘었다. 가격을 흥정하고 덤을 챙기느라 시장은

온종일 시끌벅적하다. 6월 광주시 첫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한국공예문화산업진흥회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칠보·가족, 등 다양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았다. '시장구경'에서 빠질 수 없는 건 각종 먹을거리. 허기를 채워주는 잔치국수에 돼지머리, 파전, 잡채, 과일, 시원한 음료수까지 다양했다. 또 주차장 옆 공터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는 변검, 밴드 공연, 시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 하지만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 반면, 사라져 버린 공간들도 있어 아쉬웠다. 또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예술시장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방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문란한 작업실이 많아 재미가 덜 했다. 시간이 난다면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소풍유락'(매주 토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좋을 듯하다. 블루마블을 응용한 '아트(art)뜨마블'에 참여하면 친절한 길라잡이가 있으니 빠진 곳 없이 대인시장의 '속살'을 다 볼 수 있다. 올해 야시장 운영은 2013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들마루'가 맡았다. 매일 둘째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달 새벽 2시까지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 25호 광주 '3인3색' 문화이야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 담론 계간지 '창' 25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학자, 기자, 시인 등 세 명이 '공중누각', '시민의 즐거움', '문화창조자의 집'을 주제로 3인 3색 문화이야기를 선보였다. 또 광주문화재단 김성 신임 사무처장에 대한 인터뷰와 함께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해 조명했고, 광주 문화계 뜨거운 감자인 '빛고를 문화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진단했다.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중견작가 한희원씨에 대해 다루는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창'은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볼 수 있다. 문의 062-234-272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

이승엽침대
코잔드 201 진동안마침대
프레임 A6247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침대 이승엽침대

소파 60종류

이태리엔틱 식탁, TV장

지하~2층 소파, 식탁 전문매장 3층 온열, 안마, 단롭침대 4,5층 50%할인매장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